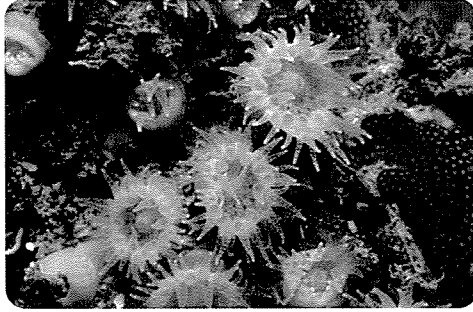


▲ 가는가시산호의 근접모습



◀ 산호군락 중 우점적으로 출현하는 무쓰뿌리돌산호의 근접모습

한려해상국립공원 자원조사에서 산호 군락지 최초 발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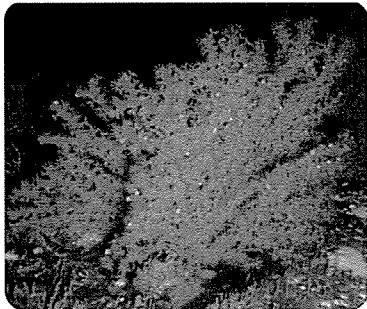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김재규)은 한려해상국립공원에서 우리나라 미기록종인 경(硬)산호류(학명 : *Corynactis* sp.)를 비롯한 산호군락지를 발견하였다.

이번에 발견된 산호군락지에서는 부채빨산호와 무쓰뿌리돌산호가 많았으며, 이 중 가는가시산호는 지금까지 제주도 해역에서만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으나 이번 조사를 통해서 한려해상국립공원 내에서도 서식한다는 것이 처음으로 확인된 것이다.

산호군락지는 육상으로부터 매우 인접한 해역에 형성되는 경우는 국내에서는 제주도 해역을 제외하고는 흔치 않으나, 이번 발견 지역은 한려해상국립공원내 육상으로부터 수평거리 약 20m 정도 떨어져 있는 소규모 자연암초지역이었고, 이곳에 형성된 수심 4m, 길이 5m, 폭 4m 정도의 바닷속 동굴 내부에서 발견되었다.

산호들은 수온이 따뜻하고 맑고 깨끗한 해역에서 주로 서식하며 바위에 붙어산다. '바다의 꽃'이라 불리는 산호는 촉수를 이용해 먹이를 잡는 동물이다.

산호는 바다생물이 숨을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 생물다양성을 유지하는데 큰 역할을 하며, 해양 무척추동물 중 해파리, 말미잘 등과 같이 자포동물에 속하며 이들 중 말미잘과 산호를 합하여 산호충류라 부른다.



▶ 우리나라 미기록 경 산호류인 *Corynactis* sp.의 근접모습

◀ 산호군락 중 우점적으로 출현하는 부채빨산호의 근접모습

